

五臺山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出土『全身舍利經』의 考察

A Study of *Chonshin-sarikyung* (sutra scroll) which was excavated at Palgagucheungsuktab (Octagonal Nine-storied stone Pagoda), Woljung-sa in Odae-san

宋 日 基 (Il-Gie Song)*

〈목 차〉

- | | |
|--------------------------|--------------------------|
| I. 緒言 | IV. 『全身舍利經』의 收拾 및 形態的 特徵 |
| II. 月精寺의 沿革 問題 | 1. 收拾經緯 |
| 1. 文殊寺 開創 | 2. 形態的 特徵 |
| 2. 月精寺 改名 | V. 『全身舍利經』의 傳來 및 造成時期 |
| III. 八角九層石塔의 特徵 및 建塔의 時期 | 1. 傳來時期 |
| 1. 石塔의 特徵 | 2. 造成時期 |
| 2. 建塔의 時期 | VI. 結論 |

초 록

이 연구는 현재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全身舍利經』(一名, 寶篋印陀羅尼經)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월정사의 연혁에 관한 문제를 문헌사료를 통해서 水多寺 장로 有緣이 13세기 중반 무렵에 改稱했던 것으로 새롭게 조명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月精寺 八角九層石塔의 건립 및 全身舍利經의 조성 또한 유연의 중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찰한 바, 이 중창시기에 석탑과 다라니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제어 : 월정사, 수다사, 유연, 팔각구층석탑, 구층석탑, 전신사리경, 보협인다라니경

Abstract

This paper is bibliographical study on *Chonshin-sarikyung* (全身舍利經 sutra scroll) which is owned by Sungbo museum, Woljung-sa (月精寺) in Odae-san (五臺山). Through the investigation with documents and other historical materials in relation to the history of Woljung-sa, I found new prospect that Elder Yuyun of Suda-sa changed name of Woljung-sa at the middle of 13th century. Therefore, as it is considered that construction of Palgagucheungsuktab (八角九層石塔 Octagonal Nine-storied stone Pagoda) and completion of *Chonshinsarikyung* were closely related to the rebuilt of Woljung-sa, it is proved that Palgagucheungsuktab and *Chonshin-sarikyung* had been completed at this rebuilt period.

Key Words : Woljung-sa, Suda-sa, Yuyun, *Chonshin-sarikyung*, Palgagucheungsuktab, Octagonal Nine-storied stone Pagoda.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gsong@chonnam.ac.kr)

• 접수일 : 2002. 8. 21 • 최초심사일 : 2002. 8. 25 • 최종심사일 : 2002. 8. 26

I. 緒言

일찍이 一然禪師는 『三國遺事』에서 국내 명산 중에 佛法이 길이 흥성할 곳으로 五臺山을 지목하였다. 그리하여 일연은 그의 대표적 저작인 『삼국유사』에 월정사 관련 사적을 4항목이나 수록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일연선사에 의해서 이 지역이 불법이 번성할 곳으로 지목될 만한 이유는, 이 곳이 바로 중국 오대산에서 유래된 文殊信仰의 중심처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곳은 신라시대 자장율사에 의해 開山된 이래 줄곧 문수신앙의 터전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처럼 일찍부터 문수신앙의 중심처로 인식되었던 오대산 洞口에는 월정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경내에는 ‘八角九層石塔’이 寂光殿 앞에 우뚝 서 있다.

그런데 이 팔각구층석탑은 세워진지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한국전쟁(6·25동란) 때에 모든 건물이 전소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어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1970년 10월에 문화재관리국의 주관으로 해체보수가 실시되었는데, 이때 석탑의 해체과정 중에 塔身部에서 佛像 및 舍利裝置가 발견된 바 있다. 특히 舍利函안의 銀製盒에서는 여러 유물과 함께 문제의 ‘全身舍利經’ 1軸도 함께 수습되었다.¹⁾ 그러나 다라니경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습기에 의해 硬化되어 펼쳐 볼 수 없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리하여 『全身舍利經』이 석가탑에서 발견된 『無垢淨經』이나 摠持寺에서 刊行된 『寶篋印陀羅尼經』과 같이 木板에 새겨서 印刷된 경전인지, 아니면 華嚴寺西五層塔에서 발견된 『墨書陀羅尼經』처럼 붓으로 쓰여진 경전인지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난 1970년에 수습된 이후 별 다른 보존처리가 실시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모습만을 보고, 기왕에 연구된 결과물과 문헌자료 등을 참작하여 몇 가지 유추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 앞서 월정사의 변화 과정과 이 절에 건립된 ‘八角九層石塔’의 造營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주체 세력 등에 관한 당시의 주변적 역학관계도 함께 논의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이는 필자 역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라서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三國遺事』와 『五臺山事蹟』에 보이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월정사의 연혁만은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듯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층석탑의 건립시기 및 전신사리경의 제작 연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洪思俊, 「月精寺八角九層石塔解體復原略報」, 『考古美術』 112 (1971.12). pp.14~24..

II. 月精寺의 沿革 問題

1. 文殊寺 開創

지금의 월정사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五臺山 동쪽 계곡에 있는 사찰로 대한 불교조계종 제4교구의 본사이다. 최초의 開創은 선덕여왕 14(645)년에 慈藏律師에 의해서 初創되었다고 전한다²⁾. 그런데 『三國遺事』에는 창건 당시의 寺勢는 임시로 草茅를 엮어 거처하였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으나, 고려 閔漬의 「慈藏祖師傳」에는 창건과 동시에 9(혹 13)층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초창의 모습이 전혀 상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초창의 양상이 문헌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에 慈藏 조사에 의한 開創 자체를 신빙성 없는 사실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³⁾.

초창 이후 60년이 지난 후에 월정사 위쪽에 자리한 上院寺가 寶川과 孝明대자에 의해서 聖德王 4(705)년에 眞如院 이란 이름으로 창건되었던 사실로 보아⁴⁾, 아마 이 무렵에 월정사 또한 文殊寺란 이름으로 초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三國遺事』의 「塔像 第4」(卷3) <臺山五萬眞身>條에 “下院에 文殊岬寺를 배치하여 都會로 삼게 하라”⁵⁾는 기록에서 上院에 대한 下院의 개념으로 초창 당시로부터 한동안 ‘文殊寺’로 불리웠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역시 遺事에 轉載된 正豐(隆)元(1156)년에 白雲子가 쓴 <五臺山文殊寺石塔記>에 보이고 있어⁶⁾, 적어도 고려 12세기 중반까지는 여전히 文殊寺라는 寺名으로 불리워 왔으며, 아울러 이 사찰내에 石塔이 존치되었던 사실을 알려 주고있다. 그러나 백운자가 문수사를 방문했을 무렵에는 信義에 의한 10세기 전후의 중창 이후 이미 세월이 오래되어 거의 廢寺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水多寺의 長老 有緣이 이 곳에 머물면서 대규모 重營을 이루고 사찰의 이름 또한 ‘月精寺’로 개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2. 月精寺 改名

그런데 『三國遺事』의 「塔像 第4」(卷3)에는 <臺山五萬眞身>을 비롯하여 <溟州五臺山寶

2) 李彙晉, 月精寺重建事蹟碑. (『朝鮮金石總覽』, p.1170 및 『朝鮮寺刹史料』, p.661 所收).

3) 崔完秀, 「月精寺」, 『명찰순례』 1, (서울: 대원사, 1994), p.109.

4) 一然, 『校勘三國遺事』 塔像 第四, 「臺山五萬眞身」,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3) 卷 3, p.297.

“以神龍元年乙巳三月初四日, 始改創眞如院, 大王親率百寮到山, 營構殿堂, 并塑泥像文殊大聖, 安于堂中.”

5) 上揭書

“以此華藏寺, 爲五臺社之本社… 又加排下院文殊岬寺, 爲寺之都會. 福田七員, 晝夜常行華嚴神衆禮懺. 上件三十七員, 齋料衣費, 以河西府道內八州之稅, 充爲四事之資. 代代君王, 不忘遵行, 幸矣.”

6) 上揭書, <五臺山文殊寺石塔記>, pp.312~314.

叱徒太子傳記>, <臺山月精寺五類聖衆>, <五臺山文殊寺石塔記> 등 4項目이 수록되어 있어, 3항목이 수록된 신라시대의 최고의 사찰로 알려진 皇龍寺와 寺格을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일찍이 오대산이 문수신앙의 중심 터전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편으로 월정사가 일연선사의 생존시기에 매우 번창했던 사찰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헌자료 중에 처음으로 ‘月精寺’라는 寺名이 쓰이고 있는 것도 遺事에서 확인되고 있다⁷⁾. 아울러 이와 같은 사실은 이후 현재 월정사에 수장되어 있는 『五臺山事蹟』에 수록된 閔漬의 기록에서도 일부 중복 확인되고 있다. 민지는 일연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로 일연 사후 그의 비문을 지은 撰者로 되어 있을 정도로 이들 사이의 매우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이들에 의해서 월정사의 사적이 정비되고 있는지는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하나, 일반적으로 사찰의 사적을 정리한다는 것은 당시 그 사찰이 번창했던 시기인 점만은 분명하다. 이에 遺事와 事蹟에 보이는 월정사 관련 기록을 채록하여 이들 관계를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師以貞觀十七年 來到此山 欲觀眞身 三日晦陰 不果而還 復住元寧寺 乃見文殊云 至葛蟠處 今淨崑寺是(亦載別傳)【後有頭陀信義 乃梵日之門人也 來尋藏師憩息之地 創庵而居 信義既卒 庵亦久廢 有水多寺長老有緣 重創而居 今月精寺是也】—「臺山五萬眞身」(『三國遺事』卷3, 塔像 第4)

一云師既還國 以梵僧所授佛衣·佛鉢·菩提腦骨等 入安皇龍寺 仍留其寺而供養 爲欲面見文殊 尋往溟州五臺山 到今月精寺地 假立草菴 留至三日 于時是山陰沈不開 未審其形而去 後又復來 創八尺房而住者 凡七日(已上出臺山本傳記)—「五臺山月精寺開創祖師傳記」(『五臺山事蹟』甲·乙本)

위의 두 문헌자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월정사의 존재 사실을 밝히면서 유독 時制를 의미하는 ‘今’자와 함께 기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今’은 ‘지금의’ 또는 ‘오늘의’를 의미하는 글자로 해석된다. 특히 위의 遺事의【】내용은 문맥상 일연선사가 앞의 古記錄을 참조하여 서술한 글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今’의 시점은 일연스님이 유사를 저술했던 대략 13세기후반(1280년대 초반)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래의 민지의 기록은 14세기 초반 무렵에 월정사에 전해오던 <臺山本傳記>를 참고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두 기록은 마치 이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다가 새로운 이름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직감케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遺事와 事蹟記의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7) 上掲書, <臺山月精寺五類聖衆>, pp.303~304

按寺中所傳古記云 慈藏法師初至五臺 欲觀眞身 於山麓結茅而住 七日不見 而到妙梵山創淨岩寺 後有信孝居士者 或云幼童菩薩化身 家在公州…士與五比丘別 後方知是五類聖衆化身也 【此月精寺 慈藏初結茅 次信孝居士來住 次梵日門人信義頭陀來 創庵而住 後有水多寺長老有緣來住 而漸成大寺 寺之五類聖衆・九層石塔 皆聖跡也】 —「臺山月精寺五類聖衆」(『三國遺事』卷3, 塔像 第4)

於是寺有五尊像 最爲奇妙 庭中有八面九層石塔 內安優婆塞多尊者舍利(出通度寺戒壇記 亦出事林廣記) 塔前有樂王菩薩石像 手捧香爐 向塔而踞 古老相傳云 是石像 從寺南金剛淵而湧出 塔亦製作甚妙 罕有其比 而又多靈異只今山中 鳥雀不敢飛過其上 爲衆靈所衛可知也 居士沒後 信義頭陀繼來重創 義公即梵日國師十聖弟子中之一人也 厥後荒廢積年 而水多寺長老有緣 重營而住 緣亦非常人也 由是世號爲四聖所住之寺也 —信孝(事蹟: 甲·乙本)

위 유사의 기록 역시 일연이 寺中에 전해 오던 古記를 참고하여 信孝居士의 五類聖衆 親見 사실을 적고 있으며, 후반의 【】 내용은 역시 일연에 의해 월정사의 事蹟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梵日의 문인인 信義頭陀의 중창 수준을 ‘創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水多寺⁸⁾ 長老 有緣의 중창 수준은 ‘大寺’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연에 의한 대규모 중창과 더불어 비로소 寺格을 갖추게 되었으며, 寺名 또한 월정사로 改稱했던 것으로 짐작된다⁹⁾. 그리하여 민지 또한 사적에서 월정사를 大寺로 중창한 有緣을 ‘非常人’으로 지칭하고 있을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月精寺라는 寺名은 유연 장로에 의한 대규모 중창 이후 불리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시기는 대략 一然이 생존했던 고려 13세기 중기를 전후한 시기로 보인다. 한편 일연은 월정사에 九層石塔이 존재했던 사실을 분명하게 遺事에 기록해 두고 있다.

8) 이 水多寺는 『삼국유사』 「慈藏定律」條의 “創水多寺 居焉”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일찍이 자장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韓國寺刹全書』를 보면, 수다사의 소재지는 강원도 강릉, 황해도 해주의 靑岩山, 전북 고창의 兜率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밖에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경북 선산의 淵岳山에도 소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遺事의 여러 기사로 보아 자장에 의해 현재의 강릉 인근지역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유연장로와 관련된 수다사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강릉부근으로 比定되고 있으나, 한동안 그 곳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異論이 없지 않았다. 이에 관한 논의로 1978년에 정순안은 수다사의 위치를 지금의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의 掛榜山에 소재한 洛伽寺 터로 추정하였으며[정순안, 「水多寺와 慈藏律師: 所在地를 중심으로 한 考證」, 臨瀛文化 2(1978), pp.76~84], 이 사실은 金渭錫에 의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 절의 위치에 대해서는 일찍이 忽滑谷快天이 『朝鮮禪教史』에서 ‘珍富面’ 일대로 비정하였는데, 이후 지난 1983년에 辛種遠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수차 이 일대를 탐방하고 ‘珍富面 水項里 143-1’ 소재의 弊寺址를 지목하였다. 특히 그는 이곳에서 ‘水多寺’ 銘文瓦片 2점을 발견하여, 그 곳이 바로 유연과 관계된 수다사의 遺墟임을 입증했다[辛種遠, 「水多寺址調査」 『박물관신문』 제 148·149호 (1984)].

9) 수다사의 소재지를 확인한 신종원은 수항리에 존치되었던 수다사가 현재의 월정사로 이전해 갔다는 鄉老(金宗烈)의 구전을 채록하였다(上掲書).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月精寺’란 寺名은 유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짐작된다.

Ⅲ. 八角九層石塔의 特徵 및 建塔의 時期

1. 石塔의 特徵

월정사 九層石塔은 일반 석탑과 같이 基壇部 위에 塔身部와 相輪部를 세운 형식이나, 평면은 8角形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형식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평면이 방형에서 벗어나 ‘多角多層’ 형식으로 전환되는 特異形 석탑이 유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강 이상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건립된 고구려 석탑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본탑의 특징에 대해서 정영호선생의 발표에 따르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특징 및 의의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⁰⁾.

- ① 석탑을 구성하고 있는 基壇部·塔身部·相輪部 전체가 原形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려시대의 우리 석탑 연구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본탑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多角多層石塔의 대표적인 것으로 각부의 가구는 異形 석탑 연구의 귀중한 모본이 되고 있다.
- ③ 양식사적 계보는 고구려의 다각탑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하나의 지역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석탑으로 주목된다.
- ④ 그리하여 본탑의 형태적 특징은 한국미술사에 있어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 ⑤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 이후로도 한강 유역에 따라 건립된 특수형 석탑에 계승 반영되고 있다.

본탑은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형태적으로 8角多層 석탑 중에 모든 지붕의 추녀 끝에 風磬(風鐸:바람방울)이 달려 있는 석탑이 주목된다. 이후로 이같은 양식으로 조성된 석탑은 고려말기(1360년대)에 세워진 묘향산 普賢寺의 ‘8角13層石塔’에서 정점을 보이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와부에 소재한 水鐘寺의 ‘8角5層石塔’에서 퇴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 建塔의 時期

월정사 구층석탑의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을 비롯하여 석탑의 특징과 발굴유물을 중심으로 그동안 여러 주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지난

10) 정영호, 「韓國美術史上 月精寺 八角九層石塔의 意義」, 『月精寺八角九層石塔의 제조명』 (평창: 월정사 정보박물관, 2000), p.66.

1970년에 이 탑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사리함에서 여타의 유물과 함께 「全身舍利經」이 발견되었는데, 석탑의 건립시기는 본경의 연대추정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탑의 건립연대를 밝히는 작업이 선결과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동안의 건립시기에 관한 기왕의 논의는 문헌기록에 근거한 창건시기와 석탑양식에 의한 고려초기 建塔說 등 대략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李能和의 『朝鮮佛教通史』에 수록된 “월정사(구 문수사) 창건과 동시에 八面十三層塔을 세웠다”는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창건과 동시에 建塔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내용은 미술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이처럼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 수록되어 있는 문헌기록은 현재 월정사에 수장되어 있는 4종의 『五臺山事蹟』 중에 1902年 轉寫本에서 轉載해 온 閔漬의 <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과 <信孝居士親見五類聖衆事蹟>에서 보이고 있다. 앞의 祖師傳에는 “월정사를 창건하고 13층 석탑을 세우고 塔心에 사리 37매를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월정사의 석탑이 창건과 동시에 건립되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민지의 뒤 기록인 事蹟에는 “가람의 정원 가운데 8面 13層石塔이 있는데, 그 탑안에 세존사리 37매를 봉안하였으며, 석탑앞에는 藥王菩薩石像이 손으로 향로를 받들고 석탑을 향하여 꿇어 앉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의 기록과 비교하여 석탑이 8面으로 되어있고 그 앞에 藥師菩薩像이 안치되어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正統 7(1442)년의 筆寫年代가 있는 古寫本의 <信孝居士>항목에는 閔漬가 『通度寺戒壇記』와 『事林廣記』라는 문헌을 참고하여 “庭中 有八面九層石塔”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후대에 이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13층’으로 잘못 수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 두 기록의 대강은 『三國遺事』에서도 보이고 있으나, 유독 13층 석탑에 관한 사실은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기에 부연해 둘 것은 閔漬의 기록을 이능화의 『朝鮮佛教通史』를 통해서 참고할 때는 古寫本을 비롯하여 적어도 3단계의 轉寫 증위과정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¹¹⁾.

둘째로 사리함출토 유물과 다각다층석탑의 양식을 근거로 신라말부터 고려초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고고미술사가의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三國遺事』에 보이는 월정사 관련 사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론적으로 건립시기를 대략 고려중기인 13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당시 조성된 석탑은 단순히 새로 건립한 것이 아니라, 초창 이후 석탑이 서있던 그 자리에 新造 重建한 석탑의 성격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은 遺事의 「塔像」편에 보이는 ‘五臺山

11) 현재 월정사의 성보박물관에는 『五臺山事蹟』으로 題名된 筆寫本 4종이 傳存되고 있다. 각 책의 말미에 기록된 筆寫記를 살펴보면, 正統 7(1442)년에 海唱의 주관으로 閔漬의 기록을 改書 轉寫한 古寫本 1종 외에 光武 6(1902)년에 轉寫 또는 補修된 3종이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古寫本 修補本 轉寫本 사이에 기록상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三國遺事』에 수록된 월정사 관련 기록과 閔漬가 작성한 기록 사이에 보이는 文獻의 層位過程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文殊寺石塔'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견해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명화 역시 월정사의 연혁과 관련지어 문수사는 월정사 이전의 寺名이며, 문수사 석탑은 현재의 8角9層石塔 자리에 새로 세워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²⁾. 다행히 문수사 석탑에 관한 기록은 白雲子가 正豐(隆의 避諱 代字) 元(毅宗 10:1156)년에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있어 적어도 이 무렵까지는 문수사 석탑이 존재하였으며, 사명도 문수사로 불리웠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8각9층석탑은 빨라야 이 시기 이후에 造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遺事의 <臺山月精寺五類聖衆>條를 보면, 記事의 앞부분은 일연스님이 사찰에 전래되고 있던 古記를 참작하여 慈藏과 신효거사의 傳記를 轉載하고 있으며, 끝 부분에는 제자 그가 이를 요약한 월정사 중창주에 관한 간략한 언급이 보이고 있다. 이 짤막한 글 중에 “이 월정사는 자장이 처음으로 茅屋을 지었고, 다음에 信孝거사가 머물렀으며, 그 다음으로 梵日의 문인인 頭陀信義가 암자를 세워 머물렀다. 오랜 시일이 흐른 이후에 水多寺의 長老 有緣스님이 이 곳에 살면서 점차 큰 절(大寺)을 이루었는데, 이 절에는 五類聖衆과 九層石塔과 같은 보물이 보존되어 있다”¹³⁾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月精寺’라는 寺名과 ‘九層石塔’의 존재가 처음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글은 一然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구층석탑의 존재사실은 有緣의 중창이후로부터 늦어도 일연의 遺事 撰述 이전시기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월정사 八角九層石塔은 有緣長老에 의한 대규모의 중창불사의 완공을 祝願하기 위해서 造成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탑을 건립한 시기 또한 바로 有緣장로의 중창시기로 추정된다.

IV. 『全身舍利經』의 收拾 및 形態的 特徵

1. 收拾經緯

팔각구층석탑은 현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 월정사 경내에 있으며, 국보 제 4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석탑은 相輪部의 裝飾을 제외한 基壇部와 塔身部 전체가 화강암으로 조성되었으며, 본래부터 월정사 寂光殿(舊 七佛寶殿) 앞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몇 번의 화재로 인하여 각 부재에 심한 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그 원형을 유

12) 조명화는 文殊寺는 一然이 활약했던 당시까지 존치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필자는 有緣장로에 의한 중창이전 시기로 제한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이에 활동했던 인물로 보인다(崔完秀, 上揭書, pp.118~119).

13) 一然, 上揭書, <臺山月精寺五類聖衆>, p.304

“此月精寺, 慈藏初結茅, 次信孝居士來住, 次梵日門人信義頭陀, 來創庵而住, 後有水多寺長老有緣, 來住而漸成大寺, 寺之五類聖衆·九層石塔, 皆聖蹟也.”

지하고 있다. 특히 6·25동란 때 사찰 건물이 전소되는 바람에 석탑의 일부가 파손되고 한편으로 기우러져 전면적인 해체보수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1970년 10월에 문화재관리국의 주관으로 이 일이 진행되었다. 이 작업 진행일정 및 收拾遺物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洪思俊선생의 보고¹⁴⁾와 정영호선생의 최근 論考가 있어 참고된다.

그런데 이 작업과정 중에 塔身部를 해체하는 도중에 제5층 屋蓋石 상면 중앙의 방공 내에서 은제도금의 如來立像 1軀(높이 9.7cm)가 발견되었고, 제1층 탑신석 상면 중앙의 圓形舍利孔 내에서는 銅鏡·經文·香木 등의 유물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靑銅盒 속에는 銀製盒과 紫色香囊 등이 들어 있었으며, 또한 銀製盒 속에서 『全身舍利經』 1軸과 水晶舍利瓶이 收拾되었다. 특히 이들 유물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全身舍利經’으로, 이는 造塔의 의미와 역사를 밝혀 줄 수 있는 결정적 자료로 평가된다.

2. 形態的 特徵

본경의 완전서명은 ‘一切如來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으로 불리우며, 일명 ‘寶篋印陀羅尼經’ 또는 ‘全身舍利經’으로 略稱된다. 이 사리경은 지난 1970년에 발굴된 이래 보존처리 없이 지금까지 월정사 박물관의 收藏庫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발굴 당시에 이미 經軸이 습기로 굳어 있어, 현재는 단순히 외형적 특징만을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사진 1). 따라서 시급히 보존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먼저 주요한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木軸의 길이는 7.3cm이며 손잡이를 제외한 紙卷 부분만은 5.8cm로 측정되었다. 목축을 포함한 卷軸의 지름은 대략 1cm 남짓하며 따라서 開卷상태의 전체길이는 1m 전후로 예측되며, 한 행에 기록할 수 있는 字數는 6~7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형태적 특징으로는 총 2,700餘字에 달하는 摠持寺板 『寶篋印陀羅尼經』의 全文을 온전히 수록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이 점이 274字 정도에 불과한 梵文을 韓譯한 呪文’ 부분만이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특히 13세기 말엽 이후로 여러 佛腹藏에서 발견된 『寶篋印陀羅尼經』은 대부분 梵字로 된 주문만이 印刷 또는 筆寫되는 사례를 보이고 있어, 전혀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¹⁵⁾.

表題는 ‘全身舍利經’으로 墨書되어 있는데, 書體는 해정한 楷書體로 歐體의 筆意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卷軸 둘레를 幅 7mm의 大麻조각으로 감아 놓고 그 사이에 가느다란 木枝로 끼워 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木軸은 갈색 옷칠한 檀香木으로 보인다. 현재는 한지를 넣고 그 위에 담은 목곽에 보존되어 있다.

14) 洪思俊, 前掲書, pp.14~24.

15) 南權熙, 「1302年 阿彌陀佛腹藏 印刷資料에 대한 書誌學的 分析」,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온양: 온양민속박물관, 1991), pp.59~60.

南權熙, 「12세기 刊行의 佛教資料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7집(1999. 6), pp.403를 參考.

V. 『全身舍利經』의傳來 및 造成時期

1. 傳來時期

한편 본경의 작성연대를 추정하기에 앞서 검토되어야 문제로 중국에서 漢譯된 시기와 그후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한역시기는 대략 중국의 天寶 5(746)년에서 大曆 6(771)년 사이로 보고 있다¹⁶⁾. 따라서 본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빨라야 惠恭王 8(772)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無垢淨經』은 704년에 唐나라에서 한역되어 불과 2년 남짓한 사이인 706년에 신라에 전래되었던 사례를 보이고 있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全身舍利經’ 역시 늦어도 9세기 전후의 시기에 신라에 이미 전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당시에 수많은 신라의 求法僧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정설로 인정되고 있으나, 애석하게도 일본의 경우처럼 求法僧들이 求得해 온 佛經을 정리하여 작성한 「求法目錄」이 한 종도 남아 있지 않다.

이와는 달리 일본에는 현재 20여종에 달하는 구법목록이 傳存되고 있어, 당시에 전래된 불서를 살펴보는 데 참고가 된다. 이에 본경을 일본의 구법목록을 조사해보니, 과연 『靑龍寺求法目錄』과 『圓珍入唐求法目錄』 등에서 散見되고 있다¹⁸⁾. 이 불경이 일본에 전래된 시기는 大中 9~11(855~857)년 사이로 신라 文聖王代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우리나라에는 늦어도 9세기 중반 이전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본경은 대략 9세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筆寫本 형태로 流通되다가, 중국 吳越板의 간행에 영향을 받아 급기야 개성의 攄持寺에서 고려 穆宗 10(1007)년에 목판본으로 開板되는 양상을 보인다¹⁹⁾.

2. 造成時期

월정사본 『전신사리경』은 현재 경화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16) 千惠鳳, 「高麗初期 刊行의 一切如來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圖書館學報』 제 2집 (서울: 中央大學校 圖書館學會, 1973), p.31. 및 千惠鳳, 「高麗初期 刊行의 寶篋印陀羅尼經」, 『韓國書誌學研究』(서울: 古山千惠鳳教授定年紀念選集刊行委員會, 1991), p.396.

17) 경주 狼山의 皇福寺 석탑에서 발견된 金銅函 陰刻銘文에 “孝昭(昭)大王登霞 神龍2年丙午(706)5月30日; 今主大王佛舍利四全·金彌陀像六寸一軀·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 安置石塔第二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無垢淨經이 706년에 安置되었던 사실이 보이고 있다[黃壽永, 韓國金石遺文(서울: 一志社, 1985), p. 140.]

18) 『大正新修大藏經』第55冊「目錄部」參照.

19) 千惠鳳, 上揭書, p.18. 및 p.404.

『寶篋印陀羅尼經』의 전체 문장이 수록된 것인지, 또한 수록된 내용이 梵字 혹은 漢字로 표기된 것인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다. 더욱이 다라니경이 筆寫 혹은 刊印된 것인지는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자는 앞에서 이미 『보협인다라니경』의 전문 중에 梵字로 쓰여진 呪文부분만이 筆寫되었을 가능성에 비중을 둔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攄持寺板 다라니경은 紙幅이 7.8cm에 총 길이가 2.4m에 달하나, 이에 비하여 월정사본 『전신사리경』은 紙幅이 5.8cm에 총 길이는 1m 남짓한 외형적 특징으로 보아, 필자는 그와 같이 추정할 바 있다. 따라서 卷軸의 長幅이 총지사판 보다 좁고 짧은 관계로 다라니경의 全文을 수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 하다. 다만 본문의 字徑이 小細字로 필사 또는 刊印의 경우에는 예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총지사판과 유사한 형태의 板本類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12세기 중기를 전후한 시점부터는 불상의 腹藏物 가운데 다라니의 呪文부분만이 梵字로 목판에 새겨 찍은 낱장류가 간혹 발견되고 있다(사진 2·3 참조). 그런데 월정사 八角九層石塔에서 출토된 「全身舍利經」은 卷子本으로, 단순히 외형적 특징만은 총지사판의 축소판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보아, 이 다라니경은 고려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卷子의 형태에서 낱장형태로 변화되는 고려중기 이후에 조성된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 다라니경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여, 그것이 고려중기 이후의 시기에 조성되었음을 말하였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제작연대를 고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八角九層石塔의 건립시기를 추정해 내는 문제가 관건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그 대략을 언급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월정사를 대규모로 중창한 인물로 알려진 水多寺 장로 有緣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에 의해서 한동안 廢寺의 처지에 있던 절을 ‘大寺’로 만들어 비로소 오늘날의 사명인 월정사로 개명되었으며 한편 이 무렵에 지금의 구층석탑이 건립되었던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有緣이 이러한 활약상을 보였던 시기는 과연 어느 때 일 것인가. 여기에는 참고할 사료의 미비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일연의 『三國遺事』에 수록된 월정사 관련 기록 중에 문맥의 흐름을 파악해 유추해보면 상당히 그 시기를 압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먼저 넓게는 頭陀信義의 3중창(10세기 초반) 이후로부터 팔각구층석탑이 기록된 遺事의 편찬시기(1285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이 시기를 좁혀보면, 白雲子에 의해서 문수사 석탑의 존재 사실이 밝혀진 고려 의종 10(1156)년 이후의 일세기 정도로 압축된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遺事에 수록된 <臺山月精寺五類聖衆>條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일연은 월정사의 중창사실을 有緣으로 맺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중창사실을 기술하면서 信孝와 信義 부분은 ‘次’로 연결하고 있는데, 유독 有緣 부분만은 ‘後’로 표기하여 그 사이에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²⁰⁾. 이로서 오히려 有緣

과 一然은 매우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인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월정사 ‘全身舍利經’은 고려중기에 有緣장로에 의해서 월정사가 증흥된 것을 祝願하기 위해서 9층석탑을 造營하고, 한편 이를 發願할 목적으로 石塔에 봉안할 의도로 조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VI. 結 論

이상에서 월정사의 연혁 및 구층석탑의 건립시기와 전신사리경의 조성시기를 고찰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지금의 월정사는 본래 문수(갑)사로 창건되었으며, 이후 고려중기에 유연장로에 의한 대규모 중창불사와 더불어 사찰명을 ‘월정사’로 개명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2. 그리고 현재 월정사 대적광전 앞에 세워졌 있는 팔각구층석탑은 유연장로에 의한 중창 이후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3. 따라서 그 구층석탑의 건립시기 또한 삼국유사에 기록된 유연장로에 의한 중창시기로 주목하였다.
4. 한편 지난 1970 년에 구층석탑의 해체보수 과정에 탑신부에서 발견된 전신사리경은 현재까지 특별한 보존처리 없이 방치되어 있어 그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다만 외형적인 현상만을 보고 몇 가지 특징을 유추해 보았다
 - ① 동일 경전으로 고려 목종 10(1007) 년에 개성의 총지사에서 간행된 『보협인다라니경』과는 그 규모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 ② 따라서 월정사 구층석탑본 「전신사리경」은 『보협인다라니경』의 경문 전체를 모두 수록할 수 없다는 점.
 - ③ 그리하여 월정사본은 『보협인다라니경』의 경문 중에 呪文부분만을 필사해 놓았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점.
 - ④ 이러한 특징은 고려중기 이후에 복장물에서 발견된 『보협인다라니경』의 일반적인 유형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구층석탑의 건립시기와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월정사의 연혁이 분명히 밝혀져

20) 一然, 上揭書, <臺山月精寺五類聖衆>, p.304.

此月精寺, 慈藏初結茅, 次信孝居士來住, 次梵日門人信義頭陀, 來創庵而住, 後有永多寺長老有緣, 來住而漸成大寺, 寺之五類聖衆·九層石塔, 皆聖蹟也.”

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것은 고려중기에 활동했던 유연장로를 비롯한 당시 건탑의 주체세력과 관련성을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단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바로 「전신사리경」 안에 수록되어 있을 듯하다. 이는 기록물의 특성상 이 경문의 말미에 석탑 조성의 주체세력으로 파악될 功德者나 發願者의 이름과 함께 年紀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시급히 월정사본 「전신사리경」의 보존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參考文獻

『五臺山事蹟』 4冊(月精寺 所藏本)

一 然, 『校勘三國遺事』,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3.

李彙晉, 「月精寺重建事蹟碑」, 『朝鮮寺刹史料』 複製本,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46(1971).

국립문화재연구소,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1.

온양민속박물관,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온양: 온양민속박물관, 1991.

月精寺 聖寶博物館, 『月精寺 八角九層石塔의 재조명』, 평창: 월정사, 2000.

通度寺 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 과 그 莊嚴』,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 2000.

南權熙, 「12세기 刊行의 佛教資料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7집(199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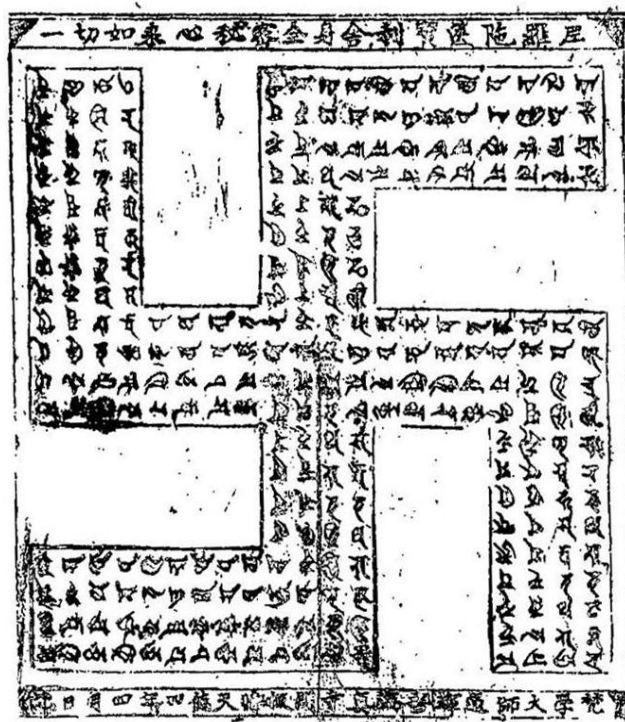
千惠鳳, 「高麗初期 刊行의 寶篋印陀羅尼經」, 『韓國書誌學研究』(서울: 古山千惠鳳教授定年 紀念選集刊行委員會, 1991).

崔完秀, 『명찰순례』 1, 서울: 대원사,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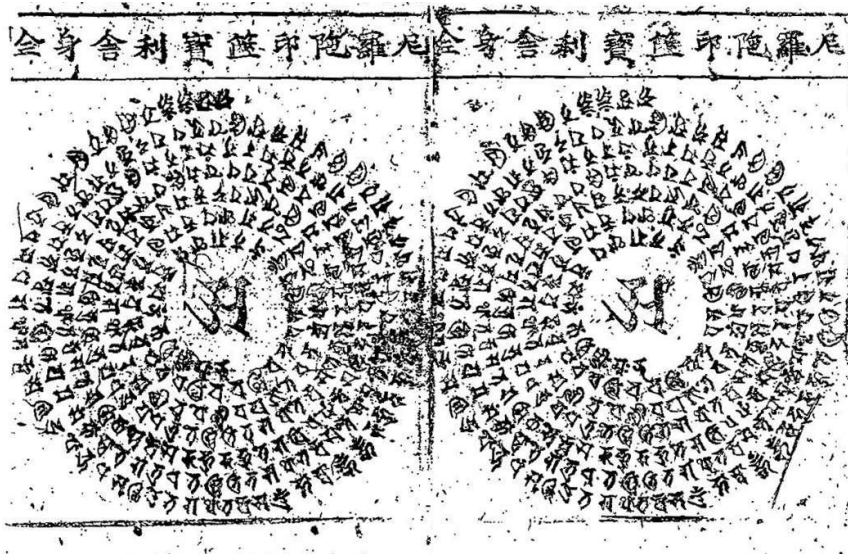
洪思俊, 「月精寺八角九層石塔解體復原略報」, 『考古美術』 112 (1971.12).



〈사진 1〉 全身舍利經(月精寺, 12세기 중기)



〈사진 2〉 全身舍利經(海眞寺, 1152年刻)



〈사진 3〉 全身舍利經(고려중기 이후) *南權熙교수 제공

KCI